韓國發明特許協會

主要 뉴—스로 살펴본 장한

韓國發明特許協會는 企業의 積極的인 參與와 關係當局의 支援을 받아 지난 73年 10月 18日 創立, 그간 發明 및 工業所有權關係 諸位의 아낌없는 聲援에 힘입어 금년 10月 18日로 15周年을 맞게 되었다.

創立當時 우리나라는 先進國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經濟開發과 輸出드라이브 政策을 追求하기 위해 創造的 自主技術 開發과 先進技術을 導入, 消化吸收하는 것의 時急한 問題로 대두되었으며 더우기 앞으로 다가올 本格的인 國際化時代와 自由競爭時代에 對備하여 外國과의 競爭에서 이길 수 있는 産業基盤의 構築이 切實했다.

이러한 時代的 要請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工業所有權 制度의 確立을 통한 新技術 開發의 促進 및 發明風土造成이 先決問題였으며 이를 解決코자 本會가 創立되었던 것이다.

이에 創立과 동시 工業所有權 制度의 受容態勢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그 認識提高와 普及·擴散을 통한 制度定着에 努力해 왔다.

그 結果 同 制度의 不毛地였던 우리나라 産業界에서도 工業所有權制度에 눈을 뜨기 始作했으며 「66發起會員」으로 出發하였던 本會는 이제 330會員에 이르게 되었다.

또 工業所有權 制度에 대한 認識을 바탕으로 發明·新技術開發을 積極的으로 誘導하기 위해 發明特許情報의 普及에 힘써 왔으며 이에 따라 企業 및 發明人들이 優秀한 發明品들을 創案하여 企業化함으로써 國內 供給은 물론 輸出까지 하는 事例도 많이 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획기적인 轉換點은 지난 82年 韓國特許協會를 韓國發明特許協會로 擴大 改編한데 있다.

具滋曄 會長·李泰燮 常勤副會長을 主軸으로 再出帆한 本會는 지난 6年동안 技術立國으로 持向하는 國家施策에 副應하여 技術革新의 要締가 되는 工業所有權制度의 定着과 發明環境造成을 위한 事業基本方向을 ▲ 發明特許認識提高 및 啓導 ▲ 發明風土造

第1章 : 偉大한 誕生

——本會 事務局 移轉——
——4回 거쳐 오늘의 자리에——

本會 事業局은 創立 당시인 73年 10月 18日 당시만 해도 종로구 관철동에 위치한 3.1로 빌딩의 全經聯 事務局內 一部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工業所有權制度의 定着化를 다져놓고야 말겠다」는 任職員(6名)의 열기는 뜨겁기 이를데 없었다.

事務局 事務室로서 제 모습을 갖춘 것은 지난 74年 3月 4日. 中區 苧洞에 위치한 科技財團 빌딩으로 옮기면서부터였다.

60坪 규모 事務室에 任職員도 16名으로 늘어 工業所有權研修講座, 各種 情報資料 發刊, 國際關係機關과의 協力强化, 常設機構設置運營, 會誌 「特協」 創刊 및 初·中學生 作文懸賞募集事業을 展開하는 등 草創期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特許管理 促進 및 發明奬勵活性化를 위한 事業을 推進할 수 있었다.

企業의 工業所有權認識提高와 함께 會員企業의 增加 및 各種 情報資料의 新規發刊 등 業務量이 늘어나면서 本會는 79年 12月 22日 여의도 全經聯會館(100坪)으로 擴張移轉함은 물론 任職員도 20名으로 增員되었다.

創立以來 6年동안 工業所有權制度를 普及·發展시키는 것을 一次事業目標로 삼아온 本會는 새 事務局에서 事務體制를 整備하여 工業所有權管理의 內實化와 國際化 趨勢에 對應하여 企業의 國際競爭力 培養을 위하여 獨自的 新技術開發을 뒷받침하기 위한 情報産業의 實

15年史

발자취

成 및 技術革新 ▲ 經營戰略으로서 特許管理體制 轉換 등 3大目標에 두고 發明特許意識高揚事業·工業所有權管理要員養成輩出事業·發明振興行事 및 展示事業·發明支援事業·發明保護啓導事業·工業所有權制度調査研究事業 · 工業所有權管理資料發刊 普及事業·各種 公報 發刊事業 · 發明特許資料(冊子) 販賣센터 運營 등 重點事業을 展開하여 이제 名實相符한 國內 唯一의 工業所有權團體로 跳躍해 가고 있다.

發明의 날 復活을 위한 紀念行事를 통한 發明有功者 및 優秀特許管理企業體 褒賞, 全國優秀發明品 展示會 開催, 發明試作品製作補助, 發明奬勵館 設置運營, 海外出願費用 및 海外發明展 出品支援등 發明振興奬勵事業에 새로운 轉機를 마련한 것이다.

한 마디로 「10年이면 江山도 變한다」는 속언을 實感나게 한다.

創立 15周年! 이제 또다시 변해가는 時點에서 지난 15年史를 주요 뉴스를 中心으로 紹介한다.

體로서 그 役割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高度의 産業技術은 人間頭腦에서 發明創案된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無限의 潛在力을 지닌 優秀한 頭腦資源의 開發과 活用에 있다.

이러한 當爲性에 비추어 汎國家的으로 發明思想을 昂揚·普及시키기 위한 發明振興事業을 民間團體의 힘만으로 推進한다는 것은 力不足이었으나 82年 2月 本會가 韓國發明特許協會로 擴大改編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現 李泰燮 常勤副會長의 就任과 함께 事務室도 지금의 중앙종묘빌딩으로 옮기고 任職員도 38名으로 增員되면서 보다 의욕적으로 企業의 特許管理促進 및 發明振興活性化를 위한 事業을 積極的으로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실로 놀라운 發展이었다 할 수 있다.

工業所有權研修講座
第1回는 73.12.5~6…最近 第76回 마쳐

沈滯狀態에 있는 國際景氣에 우리가 대처해 나갈 길은 오직 工業所有權을 通한 技術開發에 있다 하겠다.

本會는 이러한 課題를 打開하기 위하여 專擔要員의 資質向上을 통한 頭腦資源의 高級化를 기함으로서 技術開發과 直結될 수 있도록 綜合研修計劃을 樹立했다.

第1回 工業所有權研修講座는 지난 73年 12月 5日부터 6일까지 2日동안 全經聯 會議室에서 있었다.

당시만해도 「工業所有權」이란 用語 자체부터가 생소하여 큰 成果는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回를 거듭하면서 수 많은 企業內 特許管理要員을 養成 輩出한 바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企業의 技術開發 促進과 特許管理 專擔部署의 設置 및 職務發明補償制度를 採擇하는등 社內에서의 工業所有權의 重要性에 대한 認識을 提高시킴은 물론 特許專擔要員의 많은 資質向上을 가져오며 最近에 第76回 研修講座를 끝냈다.

한편 이같은 成果에도 불구하고 本會 研修는 國際特許研修院의 요청으로 사실상 제구실을 다하지 못해 많은 會員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本會 會員社들은 하나같이 本會의 單期研修의 부활을 요청해오고 있다. 따라서 本會 研修의 부활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全國 初·中學生 作文懸賞募集
發明思想 普及 위해…올해로 13回 맞아

우리의 最大武器인 頭腦資源을 養成 開發할 수 있는 길은 자라나는 兒童·學生들이 평소 공부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發明하고 科學하는 마음을 심어서 이것을 點火로 全國民에 發明思想을 전파시켜 나가는데 있다.

이에 따라 本會는 商工部·文敎部·經濟4團體·科技總聯 및 主要言論機關의 후원으로 發明思想昂揚·普及을 위한 제1회 作文懸賞募集事業을 75年度 9月 15日부터 2個月동안 展開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전국 초·중학교에서 추천한 539名이 응모하였으며 이를 文敎部 關係官들이 엄정히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本會 發明奬勵委員會議에서 24名의 入賞者를 결정 시상한 바 있다.

그후 本會 重點事業으로 해마다 展開해온 어린이 作文懸賞募集은 80年 第6回부터는 漫畵까지 곁들여 올해로 第13回를 맞게 되었는데 지난해의 경우 全國 230개 學校에서 作文 431點, 漫畵 626點 등 모두 1,057點이 응모되어 136名의 入賞者를 選定, 施賞하였으며, 전국

초·중학생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발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어 과학한국의 앞날이 밝다 하겠다.

「月刊 特協」 創刊
82年 6月「月刊 發明特許」로 바꿔 152號 發刊

飛鳥梨落格으로 國際經濟를 뒤흔든 오일쇼크는 73年 10月 18日 첫걸음을 내디딘 本會 事業에까지도 波及되어 創立初부터 企劃한 本誌는 76年 1月에야 國內唯一의 特許關係專門誌「特協」創刊號를 내놓게 되었다.

創刊號에는 制限된 內容을 編輯했다.

創刊號의 編輯人은 鄭大永 本會 前 專務理事였으나 그후 82年 3月 韓國特許協會가 韓國發明特許協會로 擴大改編되면서 同年 6月號부터 本誌의 內外面을 一新하고 그 題號도 本會 事業目的에 名實相符한「月刊 發明特許」로 바꾸었으며 編輯人도 그간에 法定節次를 마침으로써 李泰燮 常勤副會長으로 바뀌었다.

그후 本誌는 內容面에서는 企業의 發明技術開發을 促進하고 特許管理啓導를 계속 펴나가는 方向과 一般讀者들의 發明意慾을 鼓吹시키는 內容을 되도록 많이 담도록 努力하였으나 워낙 人力의 制約을 받아 改編의 幅을 크게 넓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諸般 與件이 갖추어지는대로 보다 興味있고 알찬 內容을 담아 讀者앞에 떳떳이 내 놓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創立 15周年 紀念特輯號로 通卷 第152號를 펴내게 되었다.

特許·實用新案公報 集大成版 發刊
國內最初 發刊…72,200面으로

工業所有權의 國際化趨勢는 經濟發展과 더불어 날로 急進하고 있어 國內企業이 앞서나가는 外國技術情報를 把握하지 못하고서는 國際競爭에서 落後됨은 必至의 事實이다.

따라서 기업에서 國內外 技術動向을 迅速·正確하게 把握하기 위해서는 기술정보의 基本資料인 國內의 特許·實用新案公報와 이를 分類整理한 特許·實用新案類別分類公報의 備置 活用이 緊要하다.

이러한 時代的 要請에 副應하여 本會는 特許廳의 協調로 韓國貿易協會의 輸出振興特許資金 2億원을 드려 우리나라의 特許史上 처음으로 78年 8月에, 1963年부터 1977年까지 15年 동안 國內에서 公開된 모든 특허·실용신안공보를 특허청이 유별로 분류한대로 72,200面의 尨大한 工業所有權 集大成版 公報를 發刊하게 되었다.

이 週의 優秀發明 選定
最近 673回 選定 報道依賴

本會는 每週 登錄되는 內國人의 特許 및 實用新案權을 社會에 널리 認知시킴으로써 健全한 發明風土의 造成과 個人 및 企業에서의 發明關係從事者로 하여금 自生技術 開發意欲을 鼓吹시키고자 지난 75年 4月부터 每週 이 週의 優秀發明을 選定, 言論機關을 통하여 널리 紹介하고 있다.

最近 673回를 맞은 이週의 優秀發明은 그 동안 汎國民的 發明風土 造成에 크게 기여해 왔다.

本會 會長 離·就任
朱耀翰 會長 바톤 具滋曙 會長 받아

79年 2月 9日 開催된 第6回 定期總會에서는 6年동안 本會를 이끌어온 朱耀翰 會長이 一身上의 事情으로 會長職을 辭任함에 따라 럭키금성그룹 總帥 具滋曙 會長이 本會 第2代 會長에 滿場一致로 選任되었다.

이로써 本會는 運營 第2期를 맞아 從前에 못다한 課業遂行에 더 한층 盡力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다.

離任한 朱耀翰 會長은 73年 10月 18日 本會 創立과 함께 初代 會長으로 推戴되어 國際經濟를 뒤흔든 오일쇼크 속에서도 食品·製藥·纖維化學·金屬·電子機器機械 등 主要業種과 各 經濟團體·科學技術團體 등을 網羅한 會員을 계속 入會시킴으로써 離任당시 179會員(一般會員 149社, 團體會員 11團體, 特別會員 19名)을 包含하는 名實相符한 唯一의 工業所有權團體로 發展시켜 놓았다.

79年 2月 9日 世宗호텔 海金剛홀에서 베풀어진 新舊會長 離·就任式은 和氣靄靄했다.

新 具滋曙 會長과 舊 朱耀翰 會長의 相互 위로와 격려는 실로 뜨거워 本會의 밝은 앞날을 읽을 수 있었다.

이날 新任 具滋曙 會長은 人事를 통해『技術革新의 要締가 되는 工業所有權制度의 定着과 發明環境造成을 위하여 最善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고 이를 충실히 이행, 本會 會員들의 絶對的인 支持를 받아 4代에 이어 5代와 6代會長에 留任되었다.

韓·佛 國際工業所有權세미나
內外講士 10名…500餘名 參加

本會 創立이래 가장 큰 規模로 열린 韓·佛國際工業所有權세미나가 韓·佛兩國特許廳 共同主催 本會 主管으로 81年 9月 7日부터 9日까지 全經聯國際會議室에서 열렸다.

WIPO 및 파리協約에의 加入으로 이미 國際化가 加速되고 있는 工業所有權制度上의 國際交流를 促進, 우리 經濟圈의 海外擴大方案의 基礎的 手段으로서 그 活用의 極大化라는 趣旨에서 열린 이 세미나에는 國內外 工業所有權專門家 10名이 特別招請되고, 全國 各 企業 및 關係機關에서 500餘名이 動員됨으로서 大盛況을 이루었다.

그런데 本會는 會員企業의 效率的인 特許管理를 지원하기 위해 創立이후 매년 2~4回씩 美國·日本·프랑스등 先進工業國의 工業所有權 專門家를 招請, 工業所有權세미나를 開催해 오고 있다.

第2章 : 꾸준한 發展

韓國發明特許協會로 改稱
第9回 定期總會서

82年 2月 15日(月) 上午 11時 10分. 第9回 本會 定期總會가 진행중이던 이 時刻은 本會로서는 歷史的인 순간이었다.

『韓國特許協會가 韓國發明特許協會로 그 機能이 擴大强化되어야 하겠으며 發明風土의 造成과 發明奬勵事業의 核心推進體로서의 機能을 擔當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이날 당시 李相燮 特許廳長의 祝辭는 定期總會에 參席한 200餘 會員의 우렁찬 박수속에 진행되었다.

韓國特許協會가 韓國發明特許協會로 擴大改編되던 이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이날 議案審議에서는 82年度 事業計劃 및 豫算案을 議決하고 任期滿了된 任員改善에서 會長團은 從來의 10名에서 18名으로 大幅 늘리는 한편 具滋暻會長을 滿場一致로 連任토록 選任하고 아울러 全 理事·監事도 改補選하였으며, 定款改正에 따라 常勤副會長制를 採擇, 常勤副會長 등 常勤任員의 選任은 會長에게 一任하도록 滿場一致로 可決하였다.

李泰燮 初代 常勤副會長 就任
本會 擴大改編과 함께

韓國發明特許協會로서의 새 出帆과 더불어 82年 3月 31日 本會 會議室에서 初代 常勤副會長으로 現 李泰燮 副會長이 就任하였다.

新任 李泰燮 副會長은 就任 다음 날인 4月 1日 本會 副會長室에서 本會 出入記者들과의 會見을 통해 技術立國으로 指向하는 國家施策에 副應하여 工業所有權制度의 定着과 發明風土造成을 위하여 Ⅰ. 工業所有權認識提高, Ⅱ. 發明振興奬勵, Ⅲ. 特許管理體制를 確立하는 등 3가지 基本事業方向을 提示하였다.

李泰燮 副會長은 또 本會 會誌에 게재된 「新任人事에 갈음하여」를 통해 『擴大發明振興事業의 展開와 더불어 産業技術革新을 통한 國民經濟의 成長 및 國際競爭力 培養에 積極的으로 寄與하고자 法人名을 韓國發明特許協會로 改稱, 새로이 出帆을 다지면서 會長에 具滋暻 會長을 모시고 初代 常勤副會長에 本人이 選任되어 어려운 일을 맡게 되어 무거운 使命感이 앞선다』고 전제하고 『새 轉機를 맞아 本會는 從來 企業爲主의 發明奬勵 및 特許管理指導事業에서 企業은 물론 個人發明人을 포함한 汎國民的 發明振興의 活性化 및 企業의 特許管理促進을 위한 事業을 積極 推進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이같은 事業目的을 達成하고 政府의 技術振興政策에 副應하기 위해 全國民의 發明思想을 昂揚하고 發明人의 士氣를 振作하여 發明風土를 造成하며 優秀發明品展示會를 통한 技術情報交流 및 發明의 企業化를 促進하고자 今年 重點事業으로 發明의 날 紀念行事·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 開催·뉴욕 國際發明展參加·제네바 國際發明 新技術展參加·優秀發明試作品製作補助 및 外國出願費用補助·特許技術開發支援등의 事業을 展開하고자 하오니 倍前의 指導鞭撻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10年만에 되찾은 發明人 行事
全國發明奬勵大會로 行事가져

지난 82年 5月 19日 上午 10時 세종문화회관 小講堂에서는 10年만에 全國의 發明關係人士들의 뜻있는 모임이 있었다.

第1回 全國發明奬勵大會가 政府·産業界 및 發明人등 70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盛了하였던 것이다. 世宗大王께서 測雨器를 發明하여 世界氣象學의 기틀을 닦

으신 이날을 기리기 위하여 1957年 當時 李承晩 大統領의 喩示로 5月 19日을 發明의 날로 制定하여 해마다 全國의 發明人이 한 자리에 모여 發明을 통한 國家産業發展을 다져왔다.

그러나 지난 1972年 5月 19日 第16回 發明의 날을 끝으로 商工의 날로 吸收統合되어 그 命脈이 간신히 이어져 오다가 우리의 技術立國에 대한 實踐意志를 具體的으로 表現하기 위하여 만 10年만에 다시 發明의 날 대신 全國發明奬勵大會라는 이름으로 紀念式을 가진 것이다. 공교롭게도 測雨器를 發明한 날이라 이날 아침부터 비가 내려 大會參席者들의 感懷를 더욱 無量케 하였다.

그런데 이날 大會에서는 發明人 沈昇澤씨가 銀塔産業勳章을 받는 등 30名이 勳章·褒章·大統領表彰·國務總理表彰·商工部長官表彰 등을, (株) 金星社등 6個社는 優秀特許管理業體賞을, 國際發明品展示會受賞者 28名은 紀念메달을 받아 이날 大會는 한마디로 축제분위기였다.

이 行事는 이후 계속되고 있으나 發明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發明의 날의 부활이 시급히 要請되고 있다.

發明學術大會
發明의 날 行事 일환…올해로 7回 맞아

本會가 發明의 날 行事의 일환으로 發明의 低邊擴大와 企業의 技術發展을 위한 새로운 方向을 提示하고 工業所有權이 國家經濟發展에 미치는 影響과 尖端科學技術의 展望을 學術的 차원에서 硏究해 봄으로서 2000年代를 향한 未來指向的인 國家産業發展을 도모코자 마련한 發明學術大會는 지난 82年부터 發明의 날 行事의 일환으로 5月 20日에서 30日 사이에 開催되고 있다.

82年 第1回 大會는 5月 22日 特許廳 硏修室에서 가졌다. 또 83年에는 5月 26日, 84年에는 5月 25日, 86年에는 5月 29日, 그 이후부터는 매년 5月 19日에 特許廳 硏修室에서 가졌다.

優秀發明試作品 製作 支援
82年부터 實施…最高 800만원까지 國庫支援

零細發明人의 優秀發明考案을 積極 發掘하여 企業化를 促進함과 동시에 個人發明人들을 支援하기 위해 82年부터 實施하고 있다. 특히 第7次年度인 금년들어서는 上·下半期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支援되었다.

全國 優秀發明品 展示會
금년들어 7回째…KOEX서 開催

우리나라에서 政府支援으로는 처음 開催된 '82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가 82年 9月 1~7日까지 韓國綜合展示場(KOEX)에서 열렸다.

全國의 優秀發明品을 發掘·展示하여 國民에게 널리 觀覽시킴으로써 汎國民的 發明思想의 昂揚과 아울러 技術情報의 相互交流를 통하여 技術開發을 促進하고 優秀發明의 企業化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國家産業發展에 기여코자 한다는 趣旨로 特許廳 主催, 本會 主管으로 열린 이 展示會에는 총 216點이 出品되었다.

82年 9月 1日 上午 10時 開幕테이프를 끊음으로서 幕이 오른 '82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는 名實相符한 우리나라 發明界의 實相을 보여주는 좋은 契機가 되었다.

그런데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는 매년 성황리에 開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올해는 오는 11月 9日부터 15日까지 전국학생발명품전시회와 함께 열릴 계획이다.

工業所有權 資料 發刊
83年 3月부터는 諸公開公報도

本會는 創立이후 그 동안 會員企業 및 專擔部署設置企業의 工業所有權管理實務를 支援코자 對外的으로는 國際機構動向과 工業所有權制度, 外國企業의 特許管理實態 등을 調査·硏究하고, 對內的으로는 工業所有權制度 및 關係法規를 비롯하여 內·外國人의 工業所有權出願登錄實態調査分析, 企業內 特許制度의 活用狀況 및 職務發明補償制度 등을 調査·硏究하여 各 企業에 有益한 情報資料를 發刊·提供하여 왔다.

특히 83年 3月부터는 特許廳 發刊 工業所有權 諸公開公報(特許·實用新案·意匠·商標·公開特許·公開實用新案)를 實費로 頒布함으로써 會員企業이 國內·外 新技術 및 新製品의 開發動向을 迅速히 把握하여 非經濟的인 重複硏究와 重複投資를 豫防하는데 크게 기여하여 왔다.

發明敎室 開設

84年 3月 開設…10月로 56回 맞아

本會는 지난 84年 3月 17日 特許廳硏修室에서 東南農機(株) 趙道珍 專務理事를 비롯한 82名이 參席한 가운데 第1回 發明敎室을 開催하였다.

發明人口의 底邊擴大 및 發明人들간의 對話를 통해 發明意慾을 鼓吹하고 優秀發明을 創出할 수 있는 基盤造成을 위하여 試圖한 發明敎室은 發明의 動機와 發想에서부터 成功하기까지의 過程들을 事例中心으로 發表함과 아울러 參席者들과의 質疑應答도 가지므로써 아이디어 開發에 대한 知識을 넓혔다.

本會는 每月 2번째週 土曜日 午後 1時에 定期的으로 發明敎室을 開設하고 있는데 그동안 미숙한 점도 많았지만 試行錯誤를 거치면서 그 運營方法을 보다 效率的으로 改善해 10月로서 第56回를 맞으면서 이제 명실상부한 發明振興事業으로서의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發明奬勵館 開館

展示場·相談室·硏究室 등 갖춰

發明品의 常設展示場으로서의 役割은 물론 發明硏究活動의 支援 및 發明의 企業化促進등 發明人들을 위한 綜合機能을 遂行할 求心體로서의 發明奬勵館이 政府로부터 3,000餘萬원의 施設費補助를 받아 本會 附設로 83年 4月 15日 開館되었다.

發明奬勵館은 發明品展示場外에도 發明人에 대한 硏究活動支援과 技術情報資料提供을 위한 「硏究室」을 開放運營하며, 發明의 企業化斡旋, 發明品의 賣買, 輸出등의 流通相談과 金融支援을 斡旋하기 위한 「相談室」도 運營하고 있다.

企業人에게는 새로운 商品開發의 情報源으로서 一般國民에게는 아이디어 開發의 發想源으로서, 各級 學生들에게는 科學生活의 산 敎育場으로서의 役割도 遂行하게 될 奬勵館의 開館으로 全國民의 發明思想昂揚과 發明人의 士機振作 및 發明意慾의 鼓吹는 물론 企業의 技術開發도 促進시키고 있다.

그런데 發明奬勵館은 發明奬勵事業推進要領에 의거 6個月에 한번씩 展示品을 交替하고 있다.

創立 10周年 紀念

紀念 리셉션 및 座談會도 가져

지난 83年 10月 18日 本會 創立 10周年을 마지하여 우리나라에서의 發明振興事業에 대한 回顧와 함께 앞으로의 事業方向을 打診하므로써 發明振興事業의 活性化方案을 摸索하고자 每日經濟新聞社와 共同으로 83年 10月 26日 「韓國發明特許의 現況과 課題」란 主題로 每經會議室에서 座談會를 가졌다.

李泰燮 本會 副會長등 4名이 參加하여 每日經濟新聞社 尹錫雄 部長의 司會로 進行된 이 座談會에서 相互 주고 받은 內容은 10月 28日字 每日經濟新聞 8面에 全面揭載되었다.

本會는 또 創立 10周年을 紀念하기 위해 지난 10年동안 아낌없는 指導와 聲援을 보내준 會員 및 工業所有權關係人士 200餘名을 招請, 83年 10月 28日 本會會議室에서 自祝리셉션도 가졌다.

工業所有權 紛爭仲裁委 發足

相談·調停·仲裁業務 등 취급

發明을 奬勵하고 發明家를 保護育成하기 위한 方法의 하나로 本會는 工業所有權을 圍繞하여 날로 增加하고 있는 紛爭을 法律的 手段에 呼訴하기 前에 紛爭當事者의 意見을 조정하여 원만한 화해를 誘導하고자 紛爭仲裁委員會를 發足하여 84年 3月 15日부터 業務를 開始했다.

그런데 工業所有權 紛爭仲裁委員會는 發足이후 수많은 紛爭事件을 處理하였다.

物質特許制度심포지엄 開催

基調演說·事例發表·討論·設問調査 順

物質特許制度 導入與否에 대한 論難이 加熱되고 있는 가운데 物質特許制度심포지엄이 지난 84年 4月 3日 下午 全經聯 大會議室에서 本會와 全經聯 共同 主管으로 開催되었다.

이 자리에는 業界 및 學界, 關係當局의 專門家 多數가 參席, 107名의 聽衆이 모인 가운데 열띤 討論을 벌였는데 「우리나라의 現在 技術水準 및 經濟與件으로 볼 때 物質特許制度의 導入은 相當 期間 留保돼야 한다」는 데로 意見이 모아졌다.

이날 심포지엄은 당시 民正黨 李祥羲 국회의원의 基調演說·KAIST 金忠燮 박사의 事例發表·討論·設問調査의 順으로 진행되었다. 設問에 應答한 사람은 75名. 그런데 分析結果 이들 또한 「物質特許許與는 相當期間 留保돼야 할 것」으로 意見이 모아져 物質特許의 留保는 不可避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物質特許는 87年 7月 1日을 기해 導入되었다.

發明特許品流通販賣 展示會
서울과 釜山서 수차례 열려

本會는 ▲發明의 實施 斡旋 및 企業化促進 ▲發明品의 弘報 및 流通增進 ▲發明人의 사기진작 ▲發明思想 앙양과 風土造成 등을 위해 發明特許品流通販賣展示會를 開催하고 있다.

첫번째 發明特許品流通販賣展示會는 지난 84年 10月 26日 서울 강남구 반포동 소재 서울 京釜고속버스터미널 下車場 대합실에서 개막되어 12月 24日까지 2個月 동안 열렸는데 開幕후 연일 초만원을 이루었다.

또 同 展示會는 發明品으로서 企業化 및 販賣가 可能한 43個 發明品을 展示, 企業化斡旋 및 販賣도 겸하여 풍성한 結實을 맺었다.

이에 힘입어 本會는 매년 1~2回의 流通販賣展示會를 서울과 地方에서 開催, 큰 成果를 올리고 있다.

發明特許資料販賣센터 開場
국내의 工業所有權資料 열람 및 판매

本會는 國內外에서 發刊하는 發明 및 工業所有權 資料의 綜合的인 販賣窓口를 發明奬勵舘內에 設置運營함으로써 關聯書籍을 購入하려는 發明人 및 工業所有權 關係者들의 便宜를 圖謀함과 아울러 一般閱覽者의 利用을 통한 發明奬勵舘의 活性化를 促進시키고자 發明特許資料販賣센터를 設置했다.

지난 84年 10月 22日 本會 常設展示舘인 發明奬勵舘에 設置된 同 販賣센터에는 國內·外 發刊資料들이 열람·販賣되고 있다.

「아이디어뱅크」 開設
아이디어의 企業化 및 出願유도 위해

本社 發明振興部내에 國內最初의 아이디어뱅크가 개설되었다.

本會는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實用化시키기 위해 지난 3월 2일부터 아이디어뱅크의 업무를 시작했다.

本會는 아이디어뱅크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들 가운데 分期別로 審査를 거쳐 實用化 가능성이 있는 것은 관련企業에 실시를 알선하고, 特許·實用新案·意匠등으로 權利化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出願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접수된 아이디어는 年末에 우수한 것을 골라 施賞함으로써 發明분위기를 적극 造成해 나갈 계획이다.

그런데 접수대상은 産業 및 生活아이디어이며, 申請方法은 전화·서신, 직접 방문 신청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金生基 新任會長 就任
具滋曠 前會長은 名譽會長으로

88年부터 3年間 本會를 이끌어갈 運營陣이 새로 誕生되었다.

本會는 지난 2月 16日 第15回 定期總會에서 任期가 滿了된 具滋曠 會長 後任에 金生基 永進藥品工業(株) 會長을 第7代 會長으로 推戴하고, 具滋曠 會長은 名譽會長으로 推戴했다.

또 常勤副會長에는 李泰燮 常勤副會長이 留任되었으며, 空席中이던 常勤理事에는 金常鉉 發明振興部長이 選任되었다.

이와 함께 金善弘 起亞産業(株) 社長 등 非常勤副會長 17名은 全員 留任되고, 姜南馨 해태製菓(株) 社長 등 非常勤理事 64名은 一部 更新되었으며, 姜聖模 린나이코리아(株) 社長 등 監査 3名은 留任되었다.

發明振興會 설치 運營
個人發明人 活動支援 위해

個人發明人을 위한 發明振興會가 誕生되었다.

本會는 88年 7月 4日 個人發明人의 긴밀한 情報교환과 상호 協力을 통하여 優秀發明創出을 유도하고 發明活動을 적극 支援함으로써 효율적인 發明振興事業을 展開하기 위해 發明振興會를 설치하고, 그 運營요령을 발표했다.

本會 發明振興委員會 規程 第3條 6項에 의거 설치된 本會 附設 發明振興會는 工業所有權出願 및 登錄을 하였거나 發明에 관심이 있는 個人으로서 本會에 소정의 申請書를 제출하고 年會費 2만원을 納付하면 會員이 될 수 있다.

發明振興會의 會員에게는 工業所有權에 관한 새로운 情報의 제공을 비롯 會誌(月刊 發明特許) 및 KIPA 通信등 資料 제공, 發明振興에 대한 建議, 發明振興事業案內, 會員 상호간의 協調 증진 및 紛爭조정, 기타 發明活動이 支援된다.

發明振興會는 필요에 따라 會員의 의견을 收斂, 會員 상호간의 親睦 또는 情報교환등을 위해 會議를 開催할 수 있으며, 會員의 發明振興事業에 관한 建議는 종합검토하여 本會 發明振興事業에 反映하기로 했다. 〈ㅎ〉